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2008. 1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2008. 1

---

정 영 태 (북한연구실장)  
김 영 윤 (남북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 영 호 (기획조정실장)  
서 재 진 (북한인권연구센터장)  
임 순 희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허 문 영 (평화기획연구실장)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 목 차

I. 개요 .....	1
II. 주요내용 분석 .....	1
1. 2007년도 평가 .....	1
2. 2008년도 과업 .....	2
III. 전반적 평가 및 전망 .....	8
1. 전반적 평가 .....	8
2. 전망 .....	11
<부록> 2008년 신년 공동사설 .....	16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5

## I. 개요

북한은 2008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를 통해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라는 제목의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신년공동사설」을 발표

## II. 주요내용 분석

### 1. 2007년도 평가

- 북한은 전반적으로 2007년도를 정치·군사·경제·문화·외교 부문에서 ‘자랑찬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자평
  - 정치·군사부문에서는 “사상과 전통의 확고 부동성, 선군조선의 정치 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어, “공화국 정권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고,
  - 경제부문에서는 경제건설 부문에서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인민경제부문(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등)에서의 ‘기술개건’과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적극 추진된 결과 “원료, 동력기지와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튼튼히 다져졌을 뿐 아니라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 문화부문에서는 “혁명적인 문화정서생활 기풍이 차 넘치고 체육부문에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훌륭한 경기 성과들이 이룩”되

었고,

- 외교부문에서는 “선군조선의 대외적 권위가 전례 없이 높아지고 우리와 선린우호 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으로써 지난 한해의 대외적 관계 정상화 및 확대 노력에 대한 성과들을 부각 시킴.

지난해 경제강국 건설을 주장하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우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의 성과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사실이 주목됨.

## 2. 2008년도 과업

-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으로 제고하여 김일성 탄생 100돌인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완성을 위한 ‘부강조국건설 위업’ 달성에 매진
  - 이를 위해서 <공화국 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력사적 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부문별 과업을 제기

### □ 정치·사회부문: ‘수령결사옹위’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와 체제 결속 강조

- 북한은 정치사상적 위력을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으로 강조하면서 “핵 무기 보다 더 강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 데 주력

해야한다는 의지를 표명

- “우리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 핵은 수령결사옹위에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수령체제안보를 위해서 군-민 모두의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 노력의 강화 촉구
  - 특히 사상 문화적 침투 방지, 심리모략전 배격, 사회주의 위해 요소 불허 강조
- 당사업 부문에서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서 당세포 조직을 포함한 당조직과 일군들의 활동 강화
  - 당의 전투적 기능,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로서의 역할, 직맹 등 기층조직의 사상교양자적 기능과 역할 재활성화 강조
- 혁명적 군인정신과 주체사상·선군사상 강화 및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교양 강화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근로단체의 사상교양사업 강화 촉구
  - 청년동맹에 대한 사상교양 강화를 보다 더 강조
- 문학예술,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선전선동 수단 총동원
  - 군중문화예술 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의 활성화
- 혁명적 원칙·계급적 원칙 준수 및 반동적 사상문화 배격 촉구
  - 외부로부터의 사상·문화 유입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 고수

## □ 군사부문: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 중심의 군사력 강화

- 물리적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요구 보다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제고할 필요성과 방법을 선차적으로 강조
  - 먼저 정치사상적 위력 제고를 위한 ‘전투정치훈련’을 먼저 강조하고 물리적 방위력 사업 강화 필요성을 제기
  - 인민군대의 경제강국건설 중요전선(건설현장) 투입 필요성 강조
- 국방공업발전을 앞세워 자위적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 강화
  - 로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 강화

## □ 경제부문: 농업부문 보다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우선 강조

- 북한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단기적으로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 2012년(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해로 만들기 위해 2008년 공화국 창건 60돌을 ‘역사적 전환의 해’로 강조
-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으로 경제전선을 내세우고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인민경제의 주체성 강화,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 제고 강조
  -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국 경제구조의 특성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적 개건 원칙, ▲최대한의 실리보장과 실질적인 인민이익 보장 원칙, ▲내부자원의 동원을 기본으로 한 대외경제관계 발전 원칙



## 을 제시

- 특히 부문별로는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발전을 우선 강조
  - 4대 경제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을 발전시키는 데 모든 여타부문을 복속
  - 지질탐사사업과 채취공업부문,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 서의 생산성 증대
  
- 이어서 ‘인민생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 강조
  - 농업부문의 생산 증대
  - 경공업부문의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 건설부문의 농촌살림집 건설 확대,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 전개
  - 보건후생부문의 발전 추진: 휴양소, 료양소, 정양소 운영 개선·발전
  
-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고
  -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육사업의 혁명으로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내각에 집중시키도록 강조
  -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아래 조직 전개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 확립
  - 자력갱생원칙 강조

□ 대남부문: ‘조국통일운동’ 구호 아래 남북경제교류협력 지속  
의지 표출

- 2007년을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해로 정의
  -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채택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위업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전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강조
  - 남북고위급 협상 진행 등 다방면의 협력 전개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자>라는 구호 하에 조국통일운동 전개 촉구
  - 작년의 경우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이라는 연대성을 강조하는 전투적 구호를 내세웠음.
- 민족공조 원칙을 강조하며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고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자고 함으로써 6·15 공동선언과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에 기초한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의지 피력
- ‘친미사대와 매국배족 행위’ 거부와 ‘반전평화투쟁’ 촉구
  - ‘미국의 조선적대시 정책’ 폐기
  -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교체
  -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 정책 저지 및 미군기지 철폐
  - <주적>개념 폐기와 군사적 긴장완화와 분쟁요소 제거
-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이롭게 하는 법률적, 제도적 차원의 장치

## 정비를 요구

- 남북협력사업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 번영,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규정하고 남북협력사업을 다방면적으로 벌일 것을 촉구
  - 협력과 교류를 조국통일 차원에서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 민족공동 번영을 위하여 기여할 것을 강조

## □ 대외부문: ‘반제자주 투쟁’ 구호 속 전통적 “자주, 평화, 친선” 강조

- 오늘의 시대적 흐름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며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
- 이를 배경으로 2008년도에도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 아래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갈 것”임을 강조
  - 북미관계 개선 및 여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정상화 및 확대
- 예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여국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전통적인 외교 구호 제시로 그침.

### Ⅲ. 전반적 평가 및 전망

#### 1. 전반적 평가

- 2008년도 신년공동사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신년도 역점사업을 제시하는 형식을 띠고 있음.
  - 전년도에 대한 평가는 경제건설 노력의 성과에 집중
  - 전반적으로 대내를 중심으로 한 공동사설로 평가됨.
  
- 2008년도의 경우 정치군사적 위력을 강화하고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이 올려 세워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목표달성을 완수하겠다는 대망론을 제시
  - 김정일 정권의 안정과 경제건설을 위한 내부역량을 총집결시키기 위하여 군과 주민의 사회적 동원을 정당화하고 최대화 시키고자 함.
  
- 대내부문에서 ‘경제강국’ 건설이 우선적으로 강조된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정치사상적 위력’ 강화 → ‘군사적 위력’ 강화 → ‘경제강국’ 건설 순서로 강조되고 있음
  - 이는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아 경제건설에 앞서 내부체제의 정상화 및 강화 의도로 볼 수 있음.

## 〈'95년 이후 공동시설 발표 배경 및 변화〉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특이사항	(주체사상 동료)													
	(다양한 사상담론 등장) - 선군, 강성대국, 우리민족끼리 등													
배경	(사상적 변용 모색) - 실리·실용주의 모색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 '95 미국의 성실한 '제네바 합의 이행' 촉구</p> <p>← '97 마일의 대북적대시정책 폐기 요구</p> <p>← '04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핵문제 해결임장 제시</p> <p>← '07 핵억제력 확보 및 핵보유 정당성 역설</p> <p>← '08 핵불능화 개시 및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p> </div> <div style="width: 45%;"> <p>강성대국 노선 지속</p> <p>(경제건설·국방공업·과학기술)</p> <p>개혁조치 지속</p> <p>농업주공전선</p> <p>인민생활향상</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고난의 행군 (농업·경공업·무역)</p> <p>고난의 행군 종료</p> </div> <div style="width: 45%;"> <p>선행부문 강조</p> <p>농업주공전선</p> <p>인민생활향상</p> </div> </div>													
				고난의 행군 종료	헌법 개정	남북 정상 회담	개혁 추진 작업	7·1조치 김일성 90돌 김정일 60돌				대학 제재 심화	북핵문제 해결구면 2차남북 정상회담	공화국 창건60돌 2012년을 목표로 제시

- ※ 사회 내부적으로 규율과 질서가 이완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념 및 제도적 통제장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 ※ 단,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식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현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
- 군사부문에서도 물리적 군사역량 강화 보다 정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투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강조
- 대외부문에서는 본격적인 외교적 확장을 고려하여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일반적 구호아래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
  - 이는 ‘진보적 인민들과의 연대성 강화’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접근 보다는 실용적 접근을 반영
    - ※ 국제사회의 대북한 위협이 작년보다 크게 완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 대남부문에서도 ‘반보수 대연합’이라든가 ‘진보세력의 련대’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관계 구축 주장(민족중시, 평화수호, 전민족 대단합)을 크게 완화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비난 전무 속, 한나라당·보수세력에 대한 비난 등 ‘반보수 대연합’과 같은 통일전선전략을 위한 구체적 활동 요구 자제
  - 반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구체적 요구(정전협정의 평화협정 교

- 체,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 저지, 미군기지 철폐, 대결적 관념을 지닌 <주적>개념 제거 등)를 나열하고 이의 실천을 강조
- 특히 남북 교류협력을 ‘다방면으로’ 장려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임.

북한정권 수립 60주년을 맞아 ‘수령(김정일)결사옹위’ 체제 정상화와 안정을 다지기 위한 정치사상적 체제결속 및 조치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 주력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체제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음.

## 2. 전망

### □ 정치·사회부문

- 북한은 정치사상적 위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과 민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고조시키는 데 주력하게 될 것임.
  -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정치적 선전선동 활동 및 정치사상교육 강화
  - 사상 문화적 침투 방지, 심리모략전 배격, 사회주의 위해 요소를 불허하는 정치사상교육 및 통제활동 강화
- 당의 전투적 기능과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시키고 당세포 조직을 포함한 기층 당조직과 일군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혁신”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체제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군과 민을 최대한 동원하는 데 초점을 둘 것임.

- 특히 체제통제와 단속차원에서 ‘비사회주의그루빠’, 중간검열 총화, 중앙검찰 총화 등 간부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통해 군과 민의 불만확대 방지와 체제 분위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임.
  - 국경지대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 녹화물 및 선전물, 핸드폰 및 전화, 시장 장사 등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

## □ 군사부문

- 북한은 군에 대한 ‘수령보위’ 중심의 사상교육 및 정치·조직행사 참여 유도에 주력하게 될 것임.
  - 김정일에 대한 충성유도 차원에서 ‘수령관’ 의식화를 위한 정치조직 행사의 개최 확대
  - ‘수령보위’ 중심의 정치사상교육 심화를 위한 ‘전투정치 훈련’ 강조
- 물리적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국방공업발전’ 지속 추진
  -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래식 무기체계 개량 및 노후무기 교체, 대량살상무기 중심 비대칭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게 될 것임.
- ‘경제강국건설’에서 군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대형 규모의 건설현장에 군대투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 기개를 더 높이 떨쳐야 한다”고 강조



## □ 경제부문

- 북한은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으로 ‘경제전선’을 내세우면서 경제건설 노력에 주력하게 될 것임.
  - 『주체백년』의 2012년을 목표 연도로 잡고 2008년을 북한정권 60돌을 ‘전환기’ 즉 시작점으로 설정하여 2012년 경제건설 목표달성을 위한 최대한의 군민동원 체제를 발동해나갈 것임.
  
- 또한 경제건설을 위하여 북한은 다음과 같은 개혁개방 ‘구호’ 없는 ‘북한식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자체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진
  - 최대한의 실리를 추구하면서 위민(爲民)적 경제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 자체자원의 원천과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임.
  
- 부문별로는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 4대 경제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 지질탐사사업과 채취공업부문,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서의 생산성 증대
  
- 다음으로 ‘인민생활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 해결 강조
  - 식량농업부문의 생산 및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 과학기술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교

육사업의 혁명으로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임.

- 이러한 경제건설 노력은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내각에 집중시켜 내각의 통일적 지휘아래 조직 전개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경제역량의 정상화와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게 될 것임.

## □ 대남부문

- 북한은 전년도와 같이 남북경협을 위한 대화에는 적극 호응해 올 것이나, 정치적 관계 발전 및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대화에는 ‘근본문제’ 제기와 더불어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큼.
  - 단, 「경협활동 보장성 군사회담」 개최는 주도적으로 요구해 올 가능성이 상존
- 특히 북한은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대화 관련, 적극적 자세를 견지할 것임.
  - 경제난 타개, 대미 핵협상을 위한 배후기지 구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실리 민족공조’, 외교적 ‘반미 민족공조’ 나아가 정치적 ‘통일 민족공조’에도 모두 유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인식
  - 이에 따라 ▲3대 애국운동(06년도: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3대과업(07년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등과 같은 전투적 선전선동 구호를 크게 완화
- 북핵문제 해결과정 및 10·4 선언 이행과정에서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남관계에서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여 반미 및 반정

부 활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협력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며 동시에 통일전선사업도 계속 확대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 □ 대외부문

- 북한은 경제건설 및 체제보장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할 것임.
  - 이를 뒷받침하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경제적 지원 확대를 추구하고,
  - 베트남 등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확보를 위한 외교적 활동의 다변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부록〉 2008년 신년 공동사설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당보·군보·청년보, 신년 공동사설 발표)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는 새해 주체97(2008)년을 맞으며 1일 〈공화국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전환의 해로 빛 내이자〉라는 제목의 다음과 같은 공동사설을 실었다.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조선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락관을 안고 새해 주체97(2008)년을 맞이한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즐기차게 전진하여온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새로운 역사적단계에 들어섰다. 선군으로 존엄높은 조국땅우에 룡성번영의 찬란한 새 아침이 밝아오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자의 긍지와 전투적 기백에 넘쳐있으며 온 나라에는 전례없는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고 있다.

지난해 주체96(2007)년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되고 부강조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승리의 해였다.

지난해에 우리의 사상과 전통의 확고부동성, 선군조선의 정치군사적 위력이 만천하에 과시되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성대히 기념함으로써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으로 역세계 준비된 인민군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 선군의 길이고 우리의 진군목표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이며 우리의 힘은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다. 선군정치적 역사적 승리를 안아온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흠모심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 열의속에 우리 공화국정권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지난해의 뜻깊은 정치적 사변들은 당의 령도따라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며 신심드높이 전진하는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은 끝없이 양양하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 수 있는 전망이 열리었다.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태천의 기상으로 과감한 투쟁을 벌려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기술개건이 적극 추진되고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나라의 원료, 동력기지와 인민소비품생산기지가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한 자립적인 생산체

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공업의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큰걸음을 내디딘 지난해의 투쟁성과들은 우리 경제가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기운차게 일떠서고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에 선군시대 사회주의문화가 활짝 꽃피나 온 나라가 전투적기백과 량만으로 들끓었다.

우리 인민군대와 로동계급속에서 군중문화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들이 창조되고 우리 식의 독특한 음악예술작품들이 창작된것은 사회주의문화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친 귀중한 성과로 된다.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사상감정과 지향, 혁명적열정이 강렬하게 맥박치는 진정한 예술은 인민대중 속에 있으며 투쟁과 생활속에 뿌리박은 선군문화의 생명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뚜렷이 입증되었다. 온 나라에 혁명적인 문화정서생활기풍이 차넘치고 체육부문에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훌륭한 경기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적 길로 끝까지 나아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원칙적립장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었다. 선군조선의 대외적 권위가 전례없이 높아지고 우리와 선린우호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늘의 정세발전은 우리가 선군의 길을 걸어온것이 천백번 정당하며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에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강철의 의지, 정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혁명의 승리와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정치군사강국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었다. 대소한의 강추위도, 삼복철의 무더위도 가리지 않으시고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강행군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애국의 열정이 끓어오르게 하고 이 땅우에 창조와 변혁의 불바람이 휘몰아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특출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조국애, 민족애로 온 겨레를 격동시키는 력사적 사변들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은 세계를 경탄시켰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펼쳐지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커다란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있다.

새해 주체97(2008)년은 우리 조국과 혁명력사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될 장엄한 투쟁의 해, 민족사적인 경사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수령님의 뜻과 위업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0돛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인민의 나라, 가장 존엄높은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요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신 것은 우리 인민을 자주적이며 힘있는 혁명적 인민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다.

공화국이 걸어온 60년의 역사는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창조와 건설의 영웅서사시를 아로새기며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른 거창한 변혁의 년대기이며 반제투쟁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여온 성스러운 로정이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민위천의 리념을 구현한 사회주의 새조선을 일떠세우시고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역사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실록으로 찬란히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일대 룡성과 번영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격동적인 시기에 공화국창건 60돐을 기념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자랑이다.



우리는 2012년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국땅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 없이 잘 사는 사회주의강성 대국을 건설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의 뜻이고 위업이었다. 선군혁명의 불길 속에서 다져진 강력한 정치군사적 위력에 의거하여 우리 경제와 인민생활을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당의 부름따라 전후 천리마대진군으로 질풍같이 내달려 사회주의강국으로 비약하던 때와 같은 위대한 전환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우리가 가까운 몇 해안에 당이 내세운 웅대한 구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하자면 올해전투에서부터 총진격의 북소리를 드세차게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적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이것이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다.

선군조선의 제일국력인 정치사상적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한다.

오늘의 총진군은 사상의 총진군이며 강성대국건설에서 기본은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을 발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체의 사상론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핵무기보다 더 강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양시키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핵은 수령결사옹위에 있다. 우

리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혁명의 천만리길에서 체질화되고 공고화된 수령결사옹위정신, 일심단결의 정신이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녀트로, 생명으로 끝없이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며 수뇌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령도자를 마음속으로부터 열렬히 그리며 따르는 순결한 인간,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한결같고 언제나 한모습으로 사는 령도자의 진정한 동지가 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 기둥인 백두의 혁명정신과 그것을 계승한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조국번영의 위대한 기치이며 우리 인민의 정신력의 근본바탕이다. 우리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으로, 선군정치방식으로 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이다. 누구나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하고 건설한 우리 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투철한 신념,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보다 더 값높은 삶은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혁명적 원칙, 계급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사회주의의 본태를 살려나가야 한다. 적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단호히 짓밟개버리며 우리의 제도, 우리의 사회주의도덕과 문화, 우리의 생활양식을 좀먹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혁신하여야 한다.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대중이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깊이있게, 은이 날 때까지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나 들끓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꿰기있게 벌려야 한다. 문학예술, 출판보도물을 비롯한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하여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전체 인민이 언제나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 가야 한다.

강력한 국방력은 선군조선의 자주적 존엄의 상징이며 부강번영의 근본담보이다. 군사중시를 강성대국건설의 기본전략으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혁명적 립장은 확고부동하다.

인민군대는 자위적국방력의 중추이며 사회주의군사강국의 위력은 곧 인민군대의 위력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더욱 심화시켜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대오로 억세계준비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우리 인민군대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일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우는데 모든 군사정치사업을 확고히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 당정치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참신하게 벌리며 관병일치, 군정배합을 철저히 실현하여 전군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하나의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일당백>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전투정치훈련을 강화하여 모든 군인들을 사상이 투철하고 신념이 강하며 주체전법에 정통한 펄펄 나는 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오늘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리수복, 김광철과 같은 10대, 20대의 영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언제나 견결한 반제투쟁정신과 높은 대적관념을 지니고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함으로써 사회주의 조국을 철옹성같이 지켜나가야 한다. 부대지휘관리를 개선하고 군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강철의 근위대으로서의 우리 인민군대의 위풍과 정규화적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전군의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를 적극 다그쳐 인민군대가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를 끊임없이 창조하며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전선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 기개를 더 높이 떨쳐야 한다.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선군시대 경제 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을 앞세워 자위적

군사력의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민간무력을 더욱 강화하며 전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실현하고 원민, 원군기풍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선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단결을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벌려야 한다.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주공전선은 경제전선이다. 현시기 경제강국건설의 기본방향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를 적극 실현하여 우리 자립적 민족경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다.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진해나가는 원칙,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 하는 원칙,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우리는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켜세우는데 결정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와 중소형발전소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발전설비들의 현대화수준을 높여 전력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석탄을 원만히 생산보장하

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을 완성하고 적극 받아들여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 운수수단들을 정비보강하고 군대와 같은 강한 규률을 세우며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추켜세우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선행부문들의 생산과 기술개선사업을 통일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며 이 부문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질탐사사업과 채취공업부문에 힘을 넣어 나라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며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립업부문에서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생활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인민생활제일주의에는 준엄한 시련과 고난을 헤쳐온 우리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하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우리는 공화국 창건 60돛을 맞는 올해를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보람찬 해, 기쁨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다. 농업부문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요구대로 다수확품종을 많이 심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인민군대에서처럼 콩농사를 잘해나가야 한다.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은 주인다운 입장에서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농사에 필요한 영농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품들여 마련해놓은 현대적인 축산기지, 양어기지, 과일생산기지들을 잘 운영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소비품의 지표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생활필수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광복거리, 통일거리를 건설하던 때처럼 혁명의 수도 평양시 건설을 통이 크게 내밀며 미곡리마을과 같은 훌륭한 농촌살림집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건설부문에서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도시경영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산림조성을 비롯한 국토관리와 환경보호사업을 멀리 앞을 내다보며 백년대계로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을 더 잘 구현해나가야 한다. 보건부문 일군들은 천리마시대의 의료일군들처럼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함으로써 우리 나라 인민적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휴양소, 료양소, 정양소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명승지들을 인민들이 즐겨찾는 문화휴식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이자 경제강국이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높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제기되는 긴절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인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선군시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혁명을 일으켜 강성대국건설에서 한몫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모든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직 전개해나가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내각을 비롯한 각급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당의 경제사상과 이론, 방침을 경제강국건설의 확고부동한 지침으로 삼고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원칙, 집단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전망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포부,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발전목표와 전략을 세우며 일관성있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계획규률, 노동행정규률을 강화하고 규격화사업을 짜고들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우리 당의 선군령도업적을 지침으로 삼고 모든 사업을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해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백승의 혁명철학이 담겨져있고 강성대국건설을 위



한 전략과 투쟁방도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다. 우리는 당의 선군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학습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혁명관, 인생관을 따라배우며 언제나 장군님의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선군의 길에서 마련해주신 시대적 본보기들이 더 빛이 나게 하여야 한다. 강계정신이 창조된 자강도를 비롯한 현지도 단위들의 모범과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자면 전체 인민이 비상한 애국적 열의와 창조정신을 가지고 분발하여 떨쳐일어나야 한다.

우리 인민은 빈터우에서 사회주의를 일떠세운 영웅적인민이며 준엄한 시련을 뚫고 <고난의 행군>을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킨 강인한 인민이다.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당이 벽을 올리면 천만이 떨쳐나 강산을 올리고 조국의 부름앞에 심장을 내뭇줄 아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질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모두가 조국의 룡성변영을 위한 길에 삶의 자욱을 뚜렷이 남기는 투쟁의 기수, 창조의 영웅이 되며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자랑찬 로력적 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한다.

자력갱생에 애국이 있고 참다운 변영의 길이 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를 건설하고 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우리 조국이 천리마의 나라를 펴고 주체의 강국으로 비약하게 한 강선의 노을, 자력갱생의 노을이 온 나라를 뒤덮게 하여야 한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야 할 선구자는 우리 일군들이다. 일군들은 1970년대 당의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맡겨진 혁명초소에서 최대의 마력을 내어 일함으로써 인민이 알고 령도자의 추억속에 남는 참다운 혁명의 지휘성원이 되여야 한다. 자나깨나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고지식성, 당의 의도에 민감하며 무슨 일이나 일단 시작하면 직심스럽게 달라붙어 끝장을 보고야마는 예리한 정책적안목과 완강한 실천력, 누구나 마음이 끌리게 하는 뜨거운 인정미와 감화력, 이것이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선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품성이다.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모든 당 조직들은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 사업을 심화시켜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우며 온 사회가 양양된 정치적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키잡이를 잘하여야 한다. 당세포들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 일군들은 늘 인민들 속에 들어가 민심을 잘 알고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사업하는 참다운 인민의 총복이 되여야 한다. 당 사업이자 후방사업이고 후방사업이자 정치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기 단위 근로자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청년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활력있는 전투부대이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사상교

양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어 모든 청년들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청년영웅, 총폭탄영웅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청년들 속에서 전세대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청년들은 당의 선군청년전위답게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야 한다.

직맹, 농근맹, 녀맹조직들의 사상교양자적역할을 더욱 높여 모든 동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해는 조국통일의 길에 획기적인 국면이 열린 해였다.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력사적인 10월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 것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조국통일위업을 새로운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사변으로 된다. 민족의 통일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는 속에 북남고위급협상들이 진행되고 다방면적인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오늘의 현실은 6.15통일시대의 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 수 없으며 민족이 하나가 되어 힘차게 싸워나갈 때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는 고무적 기치이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다. 우리는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운동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어느 때에 가서도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문제는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등을 돌려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 친미사대와 매국배족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에 리롭게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여야 한다.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해나가야 한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온 민족이 내외호전분자들의 침략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반전평화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내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며 남조선에서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을 저지시키고 미군기지들을 철폐하여야 한다. 동족을 <주적>으로 삼는 대결관념을 버리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요소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북남협력사업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평화와 번영, 통

일을 이룩해나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북남경제협력을 공리공영,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조국통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확대발전시켜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의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은 주의주장과 당리당락을 떠나 민족의 대의를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하여 겨레의 통일념원을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림으로써 조국통일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 와야 할 것이다.

오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자주적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 있다. 현실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이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당의 선군령도따라 력사의 모진 풍파와 시련을 헤쳐온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끝없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우리 앞에는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날이 마중해 오고 있다. 60년을 아로새겨온 우리 공화국의 력사에서 오늘처럼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앞날에 대한  
신심과 비약의 열정이 뜨겁게 용솨음친 때는 없었다.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고 강력한 정치군사력  
과 천만군민의 불타는 애국적열의가 있기에 우리 조국땅우에는 반  
드시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될  
것이다.

모두 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두리  
에 굳게 뭉쳐 공화국의 룡성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계 싸워나가자.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 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区域合作的な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

학술회의총서

---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9,000원

---

협동연구총서

---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함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	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

## 논 총

---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근,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산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윤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2006-07	주일미군 재판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윤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허문영

---

#### KINU정책연구시리즈

---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윤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의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

월간 북한동향

---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	------------------	------------------------------

---

Studies Series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b>회원가입신청서</b>				
<b>성명</b>		<b>주민등록번호</b>	-	
<b>근무처</b>				
	<b>직위</b>			
<b>간행물 받을 주소</b>	(우편번호 :                                  )			
<b>연락처</b>	<b>전화</b>		<b>FAX</b>	
	<b>전자메일</b>			
	<b>ID</b>		<b>PW</b>	
<b>전공 및 관심분야</b>				
<b>회원구분</b>	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p>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01

---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8년 1월 일  
발행일 2008년 1월 일

---